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만족도¹⁾

손 순 옥* · 조 재 순**

옥천상업고등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of Middle School Teachers

Son, Soon-Ok* · Cho, Jae-Soon**

*Teacher, Okcheon Commercial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typ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the level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ir satisfaction related to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in middle school.

The survey data were collected by mail from 284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achers for the first graders in middle school from July to August, 2001.

The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were mainly taught by Home Economics teachers alone. The teachers teaching whole subject alone were more anxious about lacks of facilities and confidence of students and parents as well as lacks of skills and knowledge of the non-major part, and student's interest in the subject than team teaching teachers were. The team teaching teachers were more likely to be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deciding curriculum implementation types and to be satisfied with the typ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implementation was mainly affected by th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s well as the typ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주제어(Key Words) : 기술·가정(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교과 운영 형태(typ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전담지도(teaching whole subject alone), 분담지도(team teaching), 의사결정과정 참여(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만족도(satisfaction)

1) 교신저자 : 손순옥(ss04272@hanmail.n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남녀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 중의 한 교과이다. 이는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가 통합된 것으로, 교과 통합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 교사가 전 영역을 지도하는 전담지도와, 가정전공 교사와 기술전공 교사가 전공 영역별로 나누어 분담지도하는 교과의 운영 형태는 교수·학습의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통합교과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교과 지도와 관련한 교사 자신의 자신감과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가정」교과 관련 선행 연구(윤인경, 1987; 신수중학교, 1989; 최규이, 1989; 양순희, 1991; 김지숙, 1991; 박인애, 1991; 김동섭, 1992; 김인경, 1992; 백일순, 1992; 전현주, 1992; 채정숙, 1993; 김승수, 1993)는 주로 5차 교육과정 시기에 「기술·가정」교과가 극히 일부 남녀공학중학교에서만 선택되었을 때 실시된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으로 교육 대상이 전국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 운영과 관련한 연구는 7차 교육과정 시행 전에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기술·가정」교과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분석한 박노선(2001)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연구들은 통합교과 운영 형태와 만족도가 서로 관련이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교과 지도 교사가 교과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은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교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이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 운영 형태를 알아보고, 운영 형태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지도시의 애로점 및 교과 지도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교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와 교사 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통합교과와 관련된 교과 지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과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는 어떠한가?

나. 교사들이 느끼는 교과 운영상 문제점, 교과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은 어느 정도이며, 이런 인식의 정도는 교과 운영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다.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는 어느 정도이며, 참여정도 및 교과 운영 형태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라.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문헌 고찰

1. 「기술·가정」교과 교육과정 배경

「기술·가정」교과는 제 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7호, 1987)에서 가정교과와 기술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 필요와 남녀공학의 증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중학교에 처음으로 신설된 교과로, 이 시기에는 학교별로 「기술」이나 「가정」과 함께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이 폐지되고, 「기술」교과는 선택 교과였던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을 통합한 「기술·산업」으로, 「가정」교과는 선택으로 이수하던 가사를 통합하여 「가정」으로 되어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모두에게 공통 필수 교과로 이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교과 수를 10개로 정한다는 총론의 방침에 따라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정」교과와 「기술·산업」교과를 「기술·가정」으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실업·가정 관련 모든 교과가 통합되기에 이르렀다(박노선, 2001).

2. 「기술·가정」교과 운영상의 문제점

「기술·가정」교과는 전혀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가 통합된 교과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산업」교과와 「가정」교과의 내용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하위 과목들을 공통의 교과 명칭 아래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가정」교과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의 학문적 체계를 서로 존중하면서 부분적으로 관련 있는 단원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두 교과를 통합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병합의 성격을 띠고 있다(교육부, 1997).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교과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두 과목으로 분리하여 배정하였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며, 만일 두 교과의 교사가 자신의 전공 영역 내용을 지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교과 교수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 또 두 교과 내용을 한 교과서에 모아 놓음으로써 내용의 범위가 넓어져 깊이 있게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제 5차 교육과정 시행 당시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기술·가정」교과는 극히 일부의 남녀공학중학교에서만 선택 운영되었으며, 「기술·가정」교과를 선택했던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전공 영역별로 나누어 기술 영역은 기술 교사가, 가정 영역은 가정 교사가 지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장 적용에서 교사의 전문성, 분야별 시간 배정, 실습 운영 곤란, 시수 부족 등에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교과 병합으로 인해 내용이 미흡하며 비전공 분야의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지숙, 1991; 김승수, 1993). 또 교사들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 「기술·가정」교과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요도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는데(박인애, 1991; 김지숙, 1991; 김승수, 1993),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자신의 비전공 영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어 전국의 모든 중등학교에서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기술과나 가정과 교사가 없거나, 전공별 교사의 수급 인원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전공 영역별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어

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 운영 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밝혀 운영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 교사의 통합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

교과 지도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은 교직의 전문성과 관계되는 것으로 교사의 높은 자신감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통합교과의 지도는 분과된 교사 양성체제로 볼 때 교사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접적으로 통합교과 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의 자신감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통합의 성격을 지닌 사회과(권병순, 1990; 채희강, 1993; 김영대, 1996) 및 과학과(이학동, 1986; 최규철, 1999), 「기술·가정」교과(김지숙, 1991; 박인애, 1991)의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비전공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능 부족 때문에 교과 지도에 애로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합교과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대한 김효순(1997)의 연구에서는 가정전공 교사가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경우, 타 과목을 전공하고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학습 지도 활동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손순희(2001)의 연구에서도 가정전공 교사는 교과 지도시 실험·실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비전공 교사는 교과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실기 수업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다양한 수업 방법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락노선(2001)도 통합교과 지도에 대한 교사의 낮은 자신감으로 교수 능력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 저하와 불만족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4.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및 교과 운영 관련 직무 만족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 및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강순희, 1998; 유평수, 1998; 양영휘, 2000), 대부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참여 정도에 따른 교육행정이나 현지에 대한 만족도를 연

구한 것으로, 교과 운영과 관련한 교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통합교과의 운영 형태는 관련 교과 교사들에게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으나, 통합교과의 운영 형태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교사 참여와 직무 만족도 관련 연구는 통합의 역사가 긴 중학교 사회과나 과학과의 연구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교과 지도에 따른 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중 전공과목 지도 정도에 따른 만족도를 분석한 김효순(1977)의 연구에서는, 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전공 교사가 가정만을 담당할 때 가장 높으며 타 교과를 지원하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순희(2001)의 연구에서도 전공 교사가 비전공 교사보다 교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 교과 지도시 교사의 전문성 결여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기술·가정」교과는 오랫동안 학교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교과간의 통합이라는 교과의 특수성, 분과형의 교사 양성 체제, 현직 교사들의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느냐에 따라 직무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참여정도를 알아보고,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밝혀 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대상 지역은 조사의 편의상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지역으로 제한하고,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도구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작성한 후 가정교육전공 석사와 기술교육전공 석사 9인으로부터 설

문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 받고, 1학년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가정전공 교사와 기술전공 교사 1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 대상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 15문항, 교과 운영 형태 1, 교과 운영상 문제점 6, 교과 지도시 애로점 5,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 4,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2,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 2문항 등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교과 운영상 문제점은 6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심각하게 인식하는 정도를, 지도시 애로점은 5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애로를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은 교과서 내용상의 5개 단원별로 이론 지도, 실습 지도, 교수·학습 자료 준비, 평가의 하위 4개 활동 영역으로 나누고, 단원별로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을 구하여 측정하였다. 또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는 의견을 제시한 정도와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가로 구분하였으며,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정도에 대한 인식과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항들은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교과 운영상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에 4점부터 '전혀 심각하지 않다'에 1점을,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는 '매우 애로를 느낀다'에 4점부터 '전혀 애로를 느끼지 않는다'에 1점을,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은 '혼자서 잘 할 자신이 있다'에 4점부터 '동료 교사로부터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에 1점은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교과 운영상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도시에 애로를 심하게 느끼며,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와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도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정도와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2001년 7월 2일에 조사 대상 지역에 소재한 총 553개 중학교에 623부의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8월 9일까지 회수된 289부 중 284부(45.6%)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χ^2 검증, t-검증, 상관관계

〈표 1〉 조사 대상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

N = 284

개인 특성	구 분	N	%	학교 특성	구 분	N	%
성별	남	40	14.1	지역	충청북도	100	35.2
	여	244	85.9		대전광역시	57	20.1
주전공 과목	가정	229	80.6		경기도	127	44.7
	기술 / 산업관련	55	20.4	소재지	시·광역시	194	68.3
학력	대학교 졸업	178	62.7		읍·면	90	31.7
	대학원 재학	46	16.2	학교 유형	여자중학교	37	13.0
	대학원 졸업 이상	60	21.1		남자중학교	40	14.1
비전공 영역의 부전공 자격	유	68	23.9		남녀공학중학교	207	72.9
	무	216	76.1	학교 규모	9학급 이하	81	28.5
비전공 영역의 지도 경험	유	149	52.5		10학급 이상	203	71.5
	무	135	47.5	가정과 교사수 (평균 1.80)	없음	20	7.0
순회 지도	순회 지도함	14	4.9		1~2명	201	70.8
	순회 지도 안 함	270	95.1		3명 이상	63	22.2
기술과 교사수 (평균 1.56)	없음	50	17.6	기술과 교사수 (평균 1.56)	없음	50	17.6
	1~2명	175	61.6		1~2명	175	61.6
	3명 이상	59	20.8		3명 이상	59	20.8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교사 및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

중학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1년에 1학년 「기술·가정」교과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기술」이나 「가정」을 전공한 교사가 혼자서 전담지도하는 학교가 전공 교사들에 의해 영역별로 분담지도하

는 학교에 비해 4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 교사 중 한 명만 배치되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물론, 기술과 교사와 가정과 교사가 모두 배치된 학교에서도 전담지도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의 전담지도는 영역별 지도를 위한 순회 지도에 비해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측면에서의 편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규모 학교에서는 6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중학교 2, 3학년에서 주당 「가정」시수(1시간)에 비해 「기술·산업」시수(2시간)가 더 많으므로 교사 개인별 수업 시수로 볼 때, 일시적으로 가정과 교사가 1학년을 전담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순회

〈표 2〉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N = 284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		N	%
전담지도	본교 기술과나 가정과 교사 중 한 명이 지도	221	77.8
	인근학교 기술과나 가정과 순회교사 한 명이 지도	4	1.4
	본교 타 교과 교사와 함께 학급을 나누어 지도	1	0.4
	소 계	226	79.6
영역별 분담지도	본교 기술과와 가정과 교사가 함께 지도	53	18.7
	인근학교 기술과나 가정과 순회교사와 함께 지도	2	0.7
	본교 타 교과 교사와 함께 영역을 나누어 지도	3	1.0
	소 계	58	20.4
계		284	100.0

〈표 3〉 조사 대상 교사 및 학교 특성별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의 차이
N=전담226, 분담58

교사와 학교 특성		교과 운영 형태		전담지도		영역별 분담지도		계		χ ²
				N	%	N	%	N	%	
개인 특성	전공	가정	192	83.8	37	16.2	229	100.0	13.237***	
		기술/산업관련	34	61.8	21	38.2	55	100.0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	유	59	86.8	9	13.2	68	100.0		2.842
무	167	77.3	49	22.7	216	100.0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유	125	83.9	24	16.1	149	100.0	3.591	
		무	101	74.8	34	25.2	135	100.0		
학교 특성	소재지	시·광역시	147	75.8	47	24.2	194	100.0	5.452*	
		읍·면	79	87.8	11	12.2	90	100.0		
	학교 유형	여자중학교	35	94.6	2	5.4	37	100.0	6.588*	
		남자중학교	29	72.5	11	27.5	40	100.0		
		남녀공학중학교	162	78.3	45	21.7	207	100.0		
	학교 규모	9학급 이하	72	88.9	9	11.1	81	100.0	6.046*	
		10학급 이상	154	75.9	49	24.1	203	100.0		
	가정과 교사 수	없음	18	90.0	2	10.0	20	100.0	2.890	
1~2명		155	77.1	46	22.9	201	100.0			
3명 이상		53	84.1	10	15.9	63	100.0			
기술과 교사 수	없음	50	100.0	0	0.00	50	100.0	17.163***		
	1~2명	135	77.1	40	22.9	175	100.0			
	3명 이상	41	69.5	18	30.5	59	100.0			

* p<.05 ** p<.01 *** p<.001

교사와 함께 영역별로 분담지도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그쳐 순회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가 조사 대상 교사의 개인 특성이나 학교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 운영 형태는 전공, 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규모, 기술과 교사 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전공 교사가 기술/산업관련전공 교사보다 전담지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읍·면 지역에 소재한 9학급 이하의 학

교, 여자중학교, 기술과 교사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시 지역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와 남자중학교나 남녀공학중학교, 기술과 교사 수가 많은 학교에 비해 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상 문제점과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교과 운영상의 문제와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표 4), 「기술·가정」교과 운영상의

〈표 4〉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상 문제점과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

N=284

운영상 문제점	평균	지도시 애로점	평균	교육 활동 자신감	평균	
실험·실습 시설 설비 부족	2.70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3.35	가정 영역	나와 가족의 이해	3.79
수업 시수 부족	2.69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3.19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3.69
교과 운영 형태의 문제(전담/분담지도)	2.65	수행 평가에 대한 부담	3.05	기술· 산업 영역	미래의 기술	3.09
교사의 과원 문제	2.60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2.95		제도의 기초	2.88
교과 지도 교사의 자격 문제	2.47	교수·학습 자료 부족	2.92		컴퓨터와 정보처리	2.74
학생 및 학부모의 지도 교사에 대한 신뢰 문제	2.30					

문제점을 인식하는 심각성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30~2.70인데 비해 지도시 애로점은 2.92~3.35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일반적 교과 운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실제 교과 지도시의 애로를 훨씬 크게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전공 영역의 기능과 지식 부족 문제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활동시 느끼는 자신감은 「가정」영역에서는 4점 만점에 3.69~3.7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기술·산업」영역에서는 단원에 따라 2.74~3.09로 「가정」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4/5정도가 가정전공 교사로 기술/산업관련전공

교사 수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들에 의해 전체적인 단원별 자신감 정도가 좌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 및 자신감이 전공별, 비전공 영역에 대한 부전공 자격 소지와 지도 경험 유무별, 교과 운영 형태별에 따라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교과의 운영 형태에 따라 전담지도하는 교사들이 분

<표 5> 「기술·가정」교과의 운영상 문제점과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 인식의 집단간 차이

구 분		전공별 N=가정229,기/산55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별 N=유68,무216		비전공 영역의 지도경험 유무별 N=유149,무135		교과 운영 형태별 N=전담226,분담58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운영상 문제점	실험·실습 시설 설비 부족	가정 2.66 기/산 2.77	-791	유 2.71 무 2.69	.114	유 2.75 무 2.64	1.112	전담 2.75 분담 2.47	* 2.412	
	수업 시수 부족	가정 2.71 기/산 2.63	.598	유 2.60 무 2.74	-982	유 2.65 무 2.74	-817	전담 2.67 분담 2.79	-966	
	교과 운영 형태의 문제 (전담지도, 영역별 분담지도)	가정 2.66 기/산 2.62	.287	유 2.38 무 2.73	** -2978	유 2.70 무 2.59	1.038	전담 2.71 분담 2.41	* 2.357	
	교사의 과원 문제	가정 2.62 기/산 2.54	.546	유 2.59 무 2.60	-.118	유 2.66 무 2.53	1.196	전담 2.63 분담 2.50	.908	
	교과 지도 교사의 자격 문제	가정 2.46 기/산 2.52	-.598	유 2.37 무 2.50	-1.374	유 2.51 무 2.43	.984	전담 2.49 분담 2.40	.881	
	학생 및 학부모의 지도교사 에 대한 신뢰 문제	가정 2.33 기/산 2.17	1.438	유 2.24 무 2.32	-.800	유 2.37 무 2.22	1.760	전담 2.35 분담 2.10	* 2.234	
지도시 애로점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	가정 3.25 기/산 2.93	** 2.861	유 3.00 무 3.25	* -2.349	유 3.22 무 3.15	.826	전담 3.25 분담 2.93	** 2.916	
	비전공 영역의 기능 부족	가정 3.42 기/산 3.04	*** 3.337	유 3.26 무 3.37	-.988	유 3.39 무 3.30	.876	전담 3.41 분담 3.09	** 2.880	
	교수·학습 자료 부족	가정 2.94 기/산 2.81	1.154	유 2.79 무 2.96	-1.633	유 2.96 무 2.87	.967	전담 2.97 분담 2.72	* 2.283	
	수행 평가 부담	가정 3.08 기/산 2.93	1.362	유 2.90 무 3.10	-1.953	유 2.99 무 3.12	-1.490	전담 3.10 분담 2.86	* 2.169	
	학생들의 학습 흥미 저하	가정 3.00 기/산 2.74	* 2.339	유 2.96 무 2.95	.025	유 2.94 무 2.97	-.352	전담 3.00 분담 2.78	* 2.038	
교육활동 자신감	가정 영역	나와 가족의 이해	가정 3.98 기/산 2.99	*** 14.200	유 3.90 무 3.76	1.647	유 3.84 무 3.74	1.287	전담 3.88 분담 3.47	*** 4.741
		청소년의 영양과 식사	가정 3.97 기/산 2.55	*** 21.196	유 3.83 무 3.65	1.805	유 3.72 무 3.67	.582	전담 3.78 분담 3.36	*** 4.067
	기술 · 산업 영역	미래의 기술	가정 2.89 기/산 3.94	*** -9.294	유 3.35 무 3.01	** 2.839	유 3.18 무 3.00	1.756	전담 3.08 분담 3.13	-419
		제도의 기초	가정 2.63 기/산 3.93	*** -10.250	유 3.10 무 2.81	* 2.145	유 2.99 무 2.75	* 2.045	전담 2.84 분담 3.05	-1.449
		컴퓨터와 정보처리	가정 2.55 기/산 3.51	*** -6.976	유 2.86 무 2.70	1.147	유 2.84 무 2.64	1.170	전담 2.71 분담 2.85	-.976

* p<.05 ** p<.01 *** p<.001

담당지도하는 경우보다 실험·실습 시설 부족, 지도 교사에 대한 신뢰 등 3가지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전공 영역의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집단이 교과 운영 형태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 비전공 영역의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과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는 전공에 따라서는 가정전공 교사가 비전공 영역의 지식 및 기능 부족과 학생의 흥미 저하를,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가정전공 교사가 '비전공 영역의 지식 부족'에 대해 애로를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전공 영역의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교과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모든 지도 문제에 대해 애로를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 지도시 애로를 느끼는 정도는 교과 운영 형태와 가장 크게 관련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가 주로 가정과 교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은 전공에 따라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그러나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기술·산업' 영역의 '미래의 기술'과 '제도의 기초' 단원에서, 지도 경험에 따라서는 '제도의 기초' 단원에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교과 운영 형태에 따라

서는 '가정'영역 단원에 대한 자신감에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p<.001$)가 나타났는데,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영역별로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가정'영역의 단원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뚜렷하게 더 높았으며, '기술·산업'영역에서는 영역별로 분담하여 지도하는 교사의 자신감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가정'교과를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주로 가정과 교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 교육활동에 대한 자신감은 전공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교과 운영 형태는 교과 운영상 문제점, 지도시 애로점 및 자신감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므로, 효율적인 교과 운영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공 영역별로 분담지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고 근본적으로는 영역별 분담지도 형태를 제도화하는 방법으로서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와 만족도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의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정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36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표 6). 자신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정도(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거나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외)에 대해서는 '대체로 또는 전적

〈표 6〉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와 만족도

		N	%	평균(SD)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의견을 제시한 정도	제시할 기회가 없었거나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75	26.5	2.36(1.00)
		별로 제시하지 않은 편이다	68	23.9	
		적극적으로 제시한 편이다	106	37.3	
		매우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35	12.3	
		계	284	100.0	
	제시한 의견이 반영된 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11	5.3	3.01(.82)
		반영되지 않은 편이다	36	17.2	
		대체로 반영된 편이다	101	48.3	
		전적으로 반영되었다	61	29.2	
		계	209	100.0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한다	53	18.7	2.39(.90)	
	불만족하는 편이다	95	33.4		
	만족하는 편이다	109	38.4		
	매우 만족한다	27	9.5		
	계	284	100.0		

〈표 7〉 「기술·가정」운영 형태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와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

N = 284

	N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¹⁾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	
		평균	t 값	평균	t 값
전공별	가정	229	8.93	2.38	-1.17
	기술/산업	55	9.25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별	유	68	9.19	2.56	1.816
	무	216	8.93		
비전공 영역의 지도 경험 유무별	유	149	8.64	2.36	-0.624
	무	135	9.38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별	전담지도	226	8.25	2.24	-5.624***
	분담지도	58	11.90		

* p < .05 ** p < .01 *** p < .001

1)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을 제시한 정도와 의견이 반영된 정도에 대한 인식을 곱하여 구한 값

으로 반영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77.5%)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경우(22.5%)보다 3배정도 높으며, 평균 4점 만점에서 3.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대체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점 만점에 2.39로 중간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담지도가 영역별 분담지도에 비해 4배정도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전담지도 형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기술·가정」교과를 영역별로 분담하여 지도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교사들의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과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전공별, 부전공 자격 소지 및 지도 경험 유무별, 교과 운영 형태별로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7).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 결정과정에 참여한 정도는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참여한 경우에 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영역별로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식하는 교사일수록 영역별로 분담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분담지도하는 교사는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공, 비전공 영역에 대한 부전공 자격 소지 및 지도 경험 유무에 따라서는 운영 형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나 만족도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자신이 의사결정의 참여정도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강순희, 1998; 유평수, 1998; 양영휘, 2000)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고무적인 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기술·가정」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교과의 위상을 높이며 아울러 교과 운영 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 관리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4.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에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표 생략),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교사 개인 특성 및 근무 학교의 일반적 특성과 교과 운영상 문제점, 지도시 애로점, 교과 지도시 자신감,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 등 교과와 관련된 여러

〈표 8〉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 회귀분석

변인		교과 운영 형태 만족			
		β	β	β	β
개인 특성	전공 ¹⁾	.032	.030	.170*	.177*
	비전공 영역의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 ²⁾	.127*	.115*	.019	.025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³⁾	-.001	.008	-.040	-.026
학교 특성	학교 규모 ⁴⁾	-.134*	-.005	-.075	-.038
	설립 유형 ⁵⁾	-.175**	-.121	-.120*	-.089
	기술·가정 교과 운영 형태 ⁶⁾	-.324***	-.234***	-.280***	-.216***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				-.197***	-.188***
지도시 애로점에 대한 인식				-.226***	-.174**
교과 지도시 자신감	가정 영역			.013	-.051
	기술·산업 영역			.226***	.174**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			.403***		.297***
R ²		.161	.306	.341	.413
수정된 R ²		.143	.289	.315	.388
F		8.884***	17.421***	13.056***	16.085***

* p<.05 ** p<.01 *** p<.001

1) 전공: 가정=1, 기술 또는 산업관련=0

2) 비전공 영역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 있음=1, 없음=0

3) 비전공 영역 지도 경험 유무: 있음=1, 없음=0

4) 학교 규모: 9학급 이하=1, 10학급 이상=0

5) 설립 유형: 국·공립=1, 사립=0

6) 운영 형태: 전담지도=1, 영역별 분담지도=0

가지 인식을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 만족도는 교사 개인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에서는 교과 운영 형태, 설립 유형, 학교 규모, 비전공 영역에 대한 부전공 자격 소지 여부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역별 분담지도 형태일수록, 사립학교일수록, 규모가 큰 학교일수록, 부전공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수록 교사들이 교과 운영 형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학교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회귀식은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를 16.1%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를 포함한 회귀식은 만족도를 30.6% 설명해 주고 있어,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이 교과 운영 형태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사 개인 및 학교 특성의 변인들을 통제하고, 교과 운영상 문제나 지도시 애로점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지도에 대한 자신감 변인을 포함시키면, 교사의 교과 운영 형태, 만족도는 교과 운영 형태, 지도시 애로점 인식과 기술·산업 영역 자신감,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인식, 전공, 설립 유형의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즉, 영역별 분담지도 형태인 경우, 교과 지도시 애로를 적게 느낄수록, 기술·산업 영역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교과 운영상 문제를 적게 느낄수록, 기술/산업관련 전공 교사에 비해 가정전공 교사가, 사립학교에 근무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전공 교사와 기술·산업 영역 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의 대부분이 가정전공 교사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회귀

식의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34.1%로 증가하며, 여기에 의사결정과정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 변수를 포함시키면 회귀식의 설명력은 41.3%로 더욱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정도에 대한 인식은 회귀식에 포함한 어느 변수보다도 교사의 교과 운영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교과 운영 형태와 함께 교사의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가정」교과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교과의 운영 형태는 교사의 교과 운영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과 운영 형태만으로는 만족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반영으로 교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2001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의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를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만족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효율적인 「기술·가정」교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전공 교사들에 의한 영역별 분담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가정과 교사에 의해 전담지도되고 있으며, 특히,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와 여자 중학교, 기술과 교사 수가 적은 학교에서 전담지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기술과와 가정과 교사가 모두 배치된 중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전환기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교사의 개인별 수업 시수 때문에 영역별 분담지도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으며, 소규모 학교에서 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극히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교사들은 「기술·가정」교과와 관련하여 교과 운영상의 어려움보다는 실제 교과 지도와 관련된 애로를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영역별로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교과 운영상 문제점이나 지도시 애로를 더 크게 느끼고 있었

다. 교과 지도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은 「가정」영역에서는 전담지도하는 교사가 유의하게 높고, 「기술·산업」영역에서는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의 4/5정도가 가정과 교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담지도는 영역별 분담지도에 비해 높은 교과 운영상 문제와 지도시 애로점 인식, 그리고 낮은 자신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이 「기술·가정」교과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의견 반영율이 비교적 높았는데, 분담지도하고 있는 교사가 의사결정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교과 운영 형태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넷째,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보다 약간 낮았으며, 특히 전담지도하는 교사는 분담지도하는 교사에 비해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 교사들의 전공 영역별 분담지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기술·가정」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는 주로 교과 운영 형태와 관련이 있어 교과 운영 형태가 「기술·가정」교과 관련 만족도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교과 운영 형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에 대한 인식이 교사 만족도에 가장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교과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 관련 만족도에 가장 폭 넓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과의 운영 형태이므로, 「기술·가정」교과는 전공 영역별 분담지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의 운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영역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전공별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순회교사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영역별 분담지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교과 운영 형태의 문제는 「기술·가정」교과 관련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만족도와 교과 학습의 질 향상을 위해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기술」교과와 「가정」교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교과 담당 교사들은 교과 운영 형태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과 교육의 질 향상을 피하면서 교사 자신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 당국은 교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관점에서 교과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비전공 영역 지도시 매우 애로를 느끼고 자신감이 낮으므로, 교과 지도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별로 자신감이 부족한 영역을 집중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주제별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술·가정」교과 내용 난이도가 심화됨에 따라 교사들이 교과 지도상의 애로를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남자고등학교는 가정교과를, 여자고등학교는 기술교과를 이수하지 않아 영역별 전공 교사 수급 문제와 함께 실습실 확보 및 시수 감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에 모두 적용된 시기에 맞추어 교과의 운영 형태와 문제점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접수일 : 2003년 4월 2일

□ 심사종료일 : 2003년 7월 19일

참 고 문 헌

- 강순희(1998).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학교 조직 효과성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노선(2001).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 변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부(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0호.
- 권병순(1990). 중학교 통합사회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섭(1992). 기술·가정과목을 이수하는 중학생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수(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의 교육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태(1996). 중학교 사회과 통합에 대한 교사의 신념 및 인지와 실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1992). 남녀 중학생의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에 관한 인식도 차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숙(1991). 중학교 기술·가정교과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순(1997).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학교 가정과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가정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교부(1989). 중학교 실업·가정 교육과정 해설서.
- 박명주(1999).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기술과 교사의 교육과정 관점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애(1991). 기술·가정 통합교과 내용 구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일순(1992).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통합에 따른 남녀 학생들의 학습결과 비교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희(2001). 중학교 가정과와 기술·산업과 교사의 교수 행동과 교수 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수중학교(1989). 기술·가정 통합교과 운영 방안: 문교부 지정 기술·가정 실험학교 운영보고서.
- 양순희(1991). 기술·가정 교과운영에 대한 남녀 학생간의 태도 비교.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영희(2000). 중등학교 교사의 의사결정 참여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평수(1998). 교사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와 만족.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인경(1987). 남녀 공통 기술·가정과 교육내용 구성 방향: 가정과 입장에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12(1), 53-62.
- 이종이(1995). 중학교 가정과 교사의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학동(1986). 통합과학 교육의 실태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6(2), 43-51.
- 전현주(1992).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교육내용의 통합적 접근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숙(1993). 중학교 기술·가정 통합교과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태도 분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희강(1993). 중학교 사회과 통합의 장애요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 석사학위논문.
최규이(1989). 중학교 가정·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학 부모의 학습요구도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	최규철(1999). 제 6차 교육과정의 공통과학에 관한 과학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교과의 운영 형태와 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교사의 참여정도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교사의 만족도를 밝히는데 있다.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2001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284명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주로 가정과 교사에 의해 전담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전담지도하는 교사는 비전공영역의 기능과 지식 부족,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학습 흥미 저하,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문제, 설비 부족 등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영역별로 분담지도하는 교사가 의사결정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담지도 교사보다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과 운영 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주로 교과 운영 형태에 영향을 받으나,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과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정도에 대한 인식으로, 교과 운영 형태 자체보다 교사의 의사결정과정 참여가 교과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